

ISSUE '공간' 부활 프로젝트 지휘자

컬렉터 김창일

S

MAGAZINE

CULTURE/STYLE/PEOPLE

March 2-3, 2014, no.364, sunday.joongang.co.kr

I hope your are
 going well.
 I am doing spongers for
 me. thank for your gift.
 thank four come.
 I am very happy to know
 that your spollect me
 and will prayer to God to
 live long time. Also I am
 very happy to see miss
 together although I didn't see
 all my spongers



중일SUNDAY
 제364호 3월 2일-3일 값 1000원
<http://sunday.joongang.co.kr>
 58
 9 771976 026400
 ISSN 1976-0264



로 풀어 낸다. 김지영과 김보람은 플라멩코를, 김주원과 장경민은 탱고를 테마로 정박과 엇박을 넘나드는 플라멩코와 탱고의 박자 위에 움직임을 실어 흐트러진 듯 정제된 발레와 치밀하게 분할된 현대무용의 오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그간 '어떤 한 요소도 튀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려는' 무대 연출을 지향해 왔음에도 줄곧 '안무보다 디자인이 압승'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던 정구호에게 '초심'이란 곧 '춤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일 터. "춤의 '춤성'만으로도 보는 이를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꾸민 이번 무대가 현역 최고의 스타 춤꾼들을 초청한 만큼 디자인에 묻힐 일은 없을 듯하다. 정구호는 과거 인터뷰에서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당황하는 건 낯설기 때문이다. 낯설이 모여서 익숙해지면 하나의 장르로 정리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본격 연출가로 데뷔한 지 이제 네 작품째. 이제 그의 무대도 하나의 장르로 수렴되어 갈까. 아직은 그에게서 익숙함보다는 낯설음을 발견할 기대로 설레는 것이 무용팬들의 속마음일 것이다.

글 유주현 객원기자 yjoo@joongang.co.kr

사진 안성수픽업그룹

'하늘땅바다(LANDSEASKY)' 전

2월 22일~3월 23일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 외 갤러리 5곳, 문의 02-733-8948

지평선 너머 수평선



아트선재센터, 이화익 갤러리, 원앤제이 갤러리, 옴시스아트, 갤러리 인, 갤러리 스케이프 등 서울 소격동 일대에 있는 일군의 미술 공간이 하나의 전시를 나눠서 펼친다. 호주의 미디어아트 지원기관인 MAAP(Media Art Asia Pacific)의 디렉터 김 메이첸은 하늘과 바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을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해온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촬영 각도를 변화시켜 자연 경관을 기하학적으로 변형하는 안 디베츠, 하늘과 바다를 거꾸로 보여주는 김수자, 움직임에 따라 시야가 바뀌는 영상을 보여주는 바바라 캠벨, 흔들리는 버티컬 위로 역동적인 파도 영상을 보여주는 데렉 크랙클러 등의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드넓은 자연 속에서 인간이라는 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새삼 곱씹게 된다.

글 정형모 기자 hyung@joongang.co.kr, 사진 아트선재센터

키스 앤 크라이 3월 6~9일 LG아트센터, 문의 02-2005-0114

손가락 두 개가 영화가 되는 마법 같은 무대



키스 앤 크라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코치와 함께 점수를 기다리는 작은 공간. 하지만 이곳은 짧은 순간 동안 초조와 설렘,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희로애락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토토의 천국' '제8요일'의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은 그의 아내인 안무가 미셸 안느 드 메이와 함께 사랑에 관한 '키스 앤 크라이'를 무용수의 손가락 춤과 영상을 결합해 마법 같은 공연으로 빚어냈다.

영화 세트처럼 복잡한 무대 위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이 시작되면 카메라는 이를 스크린에 투사한다. 여기에 미리 녹음된 내레이션과 음악이 더해지면 손가락 영상은 한편의 서정적인 영화로 탈바꿈한다. 무대 위 작은 세트와 손가락 두 개의 세밀한 움직임이 인간의 온갖 감정을 담아 스크린의 거대한 스펙터클로 전환되는 순간 관객은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 존재조차 희미해진 사람들에 관한 기억'을 영화와 연극, 무용과 문학이 교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어로 창조한 감성충만한 무대. 내레이션은 배우 유지태가 맡았다.

글 유주현 객원기자, 사진 LG아트센터